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 “이자스민 만나고 싶다”

한국계와 교제 중인 아키노
주한대사관 통해 뜻 전해와
인터넷 공격 시달린 자스민
“관심 받는 것 부담” 사양
필리핀 언론, 당선 보도 이어
한국 제노포비아 계속 다뤄

귀화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국회에 진출한 새누리당 이자스민(35·비례대표) 당선인이 모국인 필리핀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필리핀 유력 일간지 마닐라 블레틴과 마닐라 스탠더드 투데이 등 현지 언론은 그의 당선 소식과 함께 남편(2010년 작고)을 만나 한국으로 건너와 귀화한 사연, 영화 ‘완득이’에 출연해 필리핀 출신 엄마 역을 한 것까지 자세히 전하고 있다. 언론뿐 아니라 필리핀 베니그노 아키노(52)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그가 한국 입법부의 일원이 된다는 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적인 친정집 나들이가 너무 큰일로 바뀌게 될까 걱정된다”며 “필리핀 방문은 일단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한국으로 건너온 뒤 1년에 한두 번씩 친정어머니를 만나러 고향인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다녀오곤 했다. 아키노 대통령은 1983년 암살당한 야당 정치인 베니그노 아키노와 그의 미망인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을 부모로 둔 2세 정치인이다. 미혼인 그는 지난 2월 한국계 필리핀 방송인인 그레이스 리(30·한국명 이경희)와 교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국회의원으로서 필리핀 교민사회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이민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당선 뒤 인종차별적 공격에 시달린 이 당선인은 최근 공개 일정을 자제하고 있다. 트위터나 인터넷 댓글뿐 아니라 e-메일로도 협박을 해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필리핀 언론은 그의 당선 못지않게 그에 대한 한국인들의 ‘제노포비아(xenophobia·외국인 혐오증)’ 현상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당선인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상처도 받았지만 대한민국이 얼마나 포용력이 대단한지 한번에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역할에 대해선 의욕을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새누리당 회의에 참석해서는 “이(국회의원) 자리가 상징으로 끝나지 않게 약자·소외계층을 위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을 실천하는 기구인 ‘100% 국민행복 실천본부’에서 사회통합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며 복지공약 실천에 나설 예정이다. **허진·민경원 기자 bim@joongang.co.kr**

Pinay wins seat in Korea congress

A native of Davao City has been elected as a lawmaker in South Korea's parliament, a report on ABS-CBNnews.com said yesterday. Filipina TV host and actress Jasmine Lee, 35, is the first naturalized Korean citizen to win a seat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report said. **Turn to Page 11**

필리핀 유력 일간지 ‘필리핀 스타’ 13일자 1면에 난 이자스민 의원 당선 기사. 필리핀 언론들은 이 의원의 당선과 한국 사회의 제노포비아 사태를 주요 기사로 소개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4일 “주한 필리핀대사관으로부터 이 당선인이 필리핀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키노 대통령이 현지에서 만나길 바란다는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에서 이 당선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공격이 벌어지자 이 당선인이 ‘지나친 관심을 받는 것도 부담스럽다’며 고국 방문을 연기할 예정이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아키노 대통령과의 만남은 미뤄질 전망이다. 이 당선인도 한 지인에게 “필리핀 대통령을 만나는 게 영광스러운 일

대우·STX·현대·SK 4개 건설사 베네수엘라 111억 달러 수주 눈앞

해외건설 사상 세 번째 규모

대우건설·STX건설·현대건설·SK건설 등 국내 4개 건설사가 10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베네수엘라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건설사 해외 수주 사상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지식경제부는 24일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공사(PDVSA)와 국내 건설사 간에 총 111억3500만 달러(약 12조6935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4건의 양해각서(MOU)와 1건의 인수양행서(LOI)를 25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OU가 예정된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베네수엘라의 오리노코 오일벨트 내 후닌·카라보보와 아라야 해안 간 송유관·저장시설·수출 부두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대우건설과 STX건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계획이며 사업 규모가 88억 달러에 달한다. 현대건설은 카라보보 지역에 발전소 건설 사업(10억 달러)을 PDVSA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현대건설은 또 후닌

구역 내 산타이네스 정유공장 건설(8억 달러)에 나선다.

SK건설은 산디에고와 호세 산업단지 간 초중질유 탱크와 펌프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해 5억 달러 규모의 MOU를 교환한다. 또 국영석유화학회사인 페퀴벤(PEQUIVEN)과는 3500만 달러 규모로 LOI를 맺고 엘 타블라소 지역에 에틸렌 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정종영 지경부 미주협력과장은 “이들 사업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 MOU로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과 베네수엘라 25일 제4차 자원협력위원회를 열고 마리스칼 수크레 가스전 개발에 가스공사 참여하는 문제를 양국이 공동 추진하기 위한 기본협약에 서명한다. 104억 달러 규모의 이 사업은 수크레 지역에서 가스전을 개발해 베네수엘라에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조민근 기자 jiming@joongang.co.kr**

JTBC 채널 15 아이라이트 채널·프로그램 안내는 02-751-6000

PM 8:45 **미니시리즈 ‘러브어게인’** 첫 회. 태진(최철호)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며 주최한 친연중 1회 동창회에서 지현(김지수)·영욱(류정환)·미희(이아현) 등 친구 7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 다들 잘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한 가지씩 숨기고 있는 아픈 사연이 있다. (관계기사 30분)

AM 9:50 **박경림의 오! 해피데이**

PM 8:05 **시트콤 ‘청담동 살아요’** 청담동 최고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지은(오지은). 하지만 지은의 꿈은 국수집을 차리는 것이다.

밤 10시 메인뉴스 **JTBC 뉴스 10**

이 로고가 표시된 중앙일보 사진을 스캔서치 앱을 다운로드 받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촬영하면 JTBC의 뉴스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잡습니다=4월 19일자 24면에 실린 ‘송도캠퍼스 못 가겠다는 연세대 학생들’ 기사 중 비학위 과정으로 예시한 언드우드 국제대학 등은 학위 과정인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www.dgist.ac.kr

세계 초일류 융복합 연구중심대학

DGIST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허브, 디지스트에서
지식창조형 글로벌 융복합 과학기술 리더의 꿈을 키우십시오!

Application Schedule

- Application April 26 - May 9, 2012
- Interview May 29 - June 1

Fields of Study

Information & Communication Engineering, Robotics Engineering
Energy Systems Engineering, Brain Science

Degree M.S. / Ph.D.

디지스트 2012 가을학기 대학원 학생모집

전형일정 원서접수 : 4. 26(목) ~ 5. 9(수)
면접전형 : 5. 29(화) ~ 6. 1(금)

모집전공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 로봇공학전공
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뇌과학전공

모집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장학혜택 및 특징

| 분류 | 내용 |
|---------------|---|
| 등록금 면제 | 입학금, 수업료, 기성화비 전액 면제 |
| 교육 및 연구장려금 지원 | 박사과정 : 1200만원 + a / 년 석사과정 : 720만원 + a / 년 |
| 기숙사 입주 | 전원 입주 가능 |
| 해외연수 실시 | 전공별 해외 우수대학 연수 국제 심포지엄 참가 등 |
| 전문연구요원 편입 | 박사과정 대상 우선 100% 편입 가능 |
| 국책 연구과제 참여 | DGIST 연구원의 국책 연구과제 공동수행 한국노인연구원 및 DUP 유치에 따른 국책연구 과제수행 |

MIREBrain(미러브레인) 프로그램 추진

DGIST는 미래 초일류 노년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대학과 연구소에서는 불가능한 교육과 연구의 융합, 연구 분야 간의 융합,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간의 융합을 선도하여 세계적 융합 기술을 창출하고 융복합 과학기술대학으로 도약한다. 여러분야 MIREBrain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브레인인 되어 차세대 지식창조형 글로벌 리더가 될다.

한국노인연구원(KBRI) 유치

대한민국의 세계 초일류 노년프로그램을 위해, 한국노인연구원을 DGIST 부설기관으로 유치하였읍니다. 차별화된 뇌융합 연구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국내·외 공동연구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한국노인연구원에서 여러분야의 연구 7개 영역의 융합을 이루는 주역이 되실것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DUP 인입캠퍼스 구축

DUP(DGIST-INIST-POSTED) 인입캠퍼스를 통해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과 내로유리를 구축하여 DGIST 대학원 중장기연구역인 신물질, 정보통신, 첨단의료로봇, 그린에너지, 노년학 분야의 국제 연구프로그램을 수행합니다. 여러분야 21개기 한강의 가치를 재현하는 주역으로 대한민국 첫 노벨상 수상에 도전합니다.

2013학년도 대학원 불학기 전형 안내

| 원서접수 | 모집전공 |
|----------------------------|-------------------------------|
| 1차 : 7. 12(화) ~ 7. 25(수) | 신물질공학전공(2013학년도 신년 모집) |
| 2차 : 10. 4(목) ~ 10. 22(월) |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 |
| 3차 : 12. 14(금) ~ 12. 27(화) | 로봇공학전공 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뇌과학전공 |

2012 DGIST 노벨상 수상자 초청 특별강연 시리즈

| | | |
|--|---|---|
| Albert Fert(2007 노벨 물리학상 수상) 일시 : 2012. 7. 11(수) 16:30 장소 : DGIST 국제회의장 | Andre Geim(2010 노벨 물리학상 수상) 일시 : 2012. 7. 14(토) 11:00 장소 : DGIST 국제회의장 | Erwin Neher(1991 노벨 생리학상 수상) 일시 : 2012. 10. 17(수) 16:30 장소 : DGIST 국제회의장 |
|--|---|---|

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입학문의] 053-785-5137 | admission@dgist.ac.kr